Conscience and Guilt

by James A. Knight

한　기　태
(고신대학 부교수・교육학)

이 冊의 저자인 James A. Knight 박사는 Louisiana 주 New Orleans에 있는 Tulane 大學 의학과의 부학장이며 정신 의학 교수로 1963~1964년에는 New York에 있는 Union 신학교에서 정신 의학 교수와 宗敎 Program의 director를 역임한 분이다.

양심과 죄책감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크게 波動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現實狀況은 인간에게 秩序와 意義를 부여해 주는 가치관에서부터 일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교회 청소년들마저도 분리시키고 있으며, 特히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과 동료들에게서 자신을 소외시키고 또한 부모가 기대하는 목표로부터도 격리시키게 하고 있다. 이 저서는 도덕관에 대하여 신학적・심리학적으로 응결된 議論을 提示함으로써 오늘날의 도덕 문제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려는 시도를 꾀한 冊이다.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人間性 탐구의 복잡한 旅程을 展望케 하고 복잡한 有機體로서의 인간적 이해에 대하여 도덕적 행동의 능력과 지침을 공급해 가면서 확정된 目的地까지 독자를 引導하려고 한다.

양심은,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고요한 작은 음성이며, 죄책감은 정신 분석학에서는 超自我로 結晶된 부모의 戒律이 내면화된 소산물로 이해되어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이론의 불충분성을 지적하면서 實際性을 지닌 도덕관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저자는 접근의 어떤 부분에는 同調할 수가 없으나 그의 창의성있는 이론 전개와 당면하는 현실 문제와의 솔직한 公開的인 對面에서 우리가 이득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본다.

저자는 사회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응고된 인과 관계의 結束이라고만 보는 인간관을 배척한다고 하며, 영적 통찰력과 有目的的 制約으로서 意義를 추구하려는 존재로 보는 견해가 기계적·유물론적 인간관에 대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과 책임의 문제는 인간성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며 그것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은 의식의 문제와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의식의 다양한 기준에 대한 이해 문제이다.

인간의 개인적·사회적 건강 위생을 위함이라는 죄책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는 현 時代에서, 저자는 죄책감이란 복잡하고 다각적인 것이며, 그것은 무자비한 양심에서 출발하여 생명을 파괴시키기도 하며 건강한 양심으로부터 나와 생명을 인도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또 죄책감의 문제는 인간의 개인적·사회적 행위의 특수한 안내자로서의 양심의 성격, 발달, 의의와 더없이 관련되어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심이란 것은 한 개인이 가정, 교회, 문화적 집단 속에서 가진 경험들의 유산으로 설명되는 길고도 오랜 발달의 소산이라고 본다.

제1장에서 저자는 양심의 구조를 다음의 질문에 의하여 분석한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의 기원은 무엇인가? 양심은 선천적인 것인가 또는 그것은 출생 후 자발적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인가? 사람은 오로지 양심이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만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리고 사회화의 과정은 일차적으로 유아기에 일어나는 것인가? 양심이란 초문화적인 현상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뚜렷하고 인상적인 것 중의 하나가 그의 양심이다. 양심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대신에 마음(heart)이란 용어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희랍어로서 양심이란 용어가 Syneidesis란 표현으로 약 30번 정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자신과 함께 아는 것' 또는 '자신에 대한 증인'이란 뜻이다.

저자는 인류학자·신학자·심리학자들의 양심에 대한 여러 定義를 열거하고, 그들 定義의 기원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막론하고 심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만일 양심의 존재가 부인된다면, 지금은 인류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우기 양심이 전개되는 과정의 어떤 국면은 가족과 사회 환경의 요인에 의한 것이 된다고 보는 견해에 대부분이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양심이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가졌는데 전자는 '~하지 말라'는 금지적인 면이고, 후자는 '~할지니라'는 건설적인 면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이상의 단순한 사회화 과정을 초월한 차원의 것이라고 본다.

양심이 초문화적 현상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저자의 해답은 그것이 단순한 사회화 현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것의 초문화적 가치성에 대하여는 신앙의 문제로 귀결짓고 있다.

제2장은 선택과 책임에 대하여 논하면서 결정론과 자유 의지를 다루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학설적 이론을 재열거하기보다는, 이 두 견해가 가지고 있는 모순성이 인간의 조건 속에 介在하고 있다는 통찰력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 : 15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고 하였다. Freud의 정신 분석학은 심리학적 과정에 있어서 인과 관계의 결정론을 주장하면서, 한편 그 정신 분석학의 치료법의 결과는 신경증적 과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목표하므로 주장하는 면과 결과로서 추구하는 면이 모순성을 함축한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학설과는 관계 없이 실제에 있어서 Freud는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생생한 증인이라고 그는 의미있는 말을 하고 있다. 이 선택과 책임의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는 얽힌 사회 문제들과 직접 관련시켜서 청소년 비행, 정신병, 범죄자 그리고 법정에서의 문제들로 언급하면서, 인간성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탈선자(deviant)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반응, 즉 처벌 혹은 대우, 무시와 동정 등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3장의 의식의 수준의 세계로 독자를 인도하면서, 의식이란 어느 정도로 공통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며 우리의 동기가 얼마큼 의식적인 것인가? 어느 정도로 우리는 사회의 제약을 받으며 이 시대와 문명 속에서 얼마만큼 자유롭게 도덕적 논의와 도덕적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인간성의 선과 악, 혜택적이며 파괴적이며 배타적이며, 자아 도취적인 면들을 지적한다. 인간은 개인이나 선조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의 목표, 희망에 의해서도 조건화되는 존재임을 저자는 재강조한다.

제4장에서는 인간성의 암흑 면을 논하면서 현대 심리학이 죄의 개념에 대하여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역사적 고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인'이라고 자처한 사람이나 '지옥'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도리어 양심의 가책을 적게 경험하고 살았다는 사실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수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한다. 원죄성과 인간의 타락성을 많은 현대 기독교파들이 점차로 멀리하고 있으나, 이 원죄의 개념은 기독교인 생활에서 죄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의존성이란 두 근본적 국면의 중요성을 계속 상기시킨다고 한다. 그는 현대 심리학이 '적응'의 면을 과도히 강조하는 것을 통탄하면서 성격론 연구에서 윤리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있다.

심리학과 신학이 인간성의 심원한 비관주의, 즉 악에 예속된 것과 거기에서 자유하려는 무능력을 묘사함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 분석학은 버—뮤다 반바지를 입은 칼빈주의'라고 표현한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제5장 죄책감의 여러 면모에서는 죄책감의 3가지 모형을 (1) 현실적 죄책감, (2) 신경증적 죄책감, (3) 실존적 죄책감으로 분류하고 있다. (1)의 현실적 죄책감은 그릇된 행위로써 간주되고 인정되는 데서 따르는 의식적인 현상이며, (2)의 신경증적 죄책감은 의식적인 오성(悟性)에 기원되고 있으며 통상적인 속죄의 방법으로는 해소시킬 수 없는 것이다. 실존적 죄책감의 몇 가지 특징으로는 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인간됨의 구조의 부분이며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② 선택 능력을 가진 자아 의식이란 사실에 기원된 것으로 문화적 계율이나 사회적 가치관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③ 만일 수용되지 않거나 억압된다면 (2)로 변모될 수가 있다. ④ 보통 특징군을 형성하기보다 성격 형성에 있어서 건설적인 유효성을 가진다는 점을 열거하고 있다.

다음으로 죄책감을 해소하는 기제(mechanism)들을 논함에 있어서 보상(reparation)이 건설적인 방법이며 형벌은 반대로 보상(reparation)의 파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나 때로는 이 두 방법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모세의 Lex Talionis(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는 필수적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백 역시 효과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그외 자아 부정, 과격한 자아 실현, 자아 학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저자가 죄책감으로 일어난 고독감, 단절된 관계, 소외감 등에 대한 해결은 후회와 사회적 비난의 공포를 초월한 윤리적 차원에서 획득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죄책감의 제거는 조물주와의 새로운 관계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저자가 인간은 종교적 존재란 것과 인간의 근본적 소외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올바르게 보고 있는 것이다.

제6장, 7장에는 양심의 결함, 그리고 양심의 수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저자는 현대 사회는 도덕적으로 면역성이 생긴 사회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잡하고 병든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매개체를 통한 이질적인 문화권과의 접촉이, 또는 과도한 여가를 즐기는 것이 양심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약화시키고 윤리관의 절대주의를 상대화시키는 현상을 나타낸다는 점을 제시한 것에 공감할 수 있다.

양심에 있어서 두 중심적인 문제는 심리학적 견지에서 하나는 양심의 발달이며 또 하나는 성인 구조(adult structure)라고 저자는 분석한다. 어린이는 '필연적 양심'(a must conscience), 그리고 성인은 '당위적 양심'(an ought conscience)을 가졌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성인들이 필연적 양심에서 당위적 양심으로 변형하지 못하고 유아 시절의 '권위주의적 양심'을 지닌 채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소아병(小

兒病)적 죄책감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양심에 결함이 있는 개인은 만성적으로 반 사회적이 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자가 되어 경험이나 처벌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비판력과 책임성이 결여된 미숙한 psychopathic personality가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이 책의 旅程을 상황 윤리에 대한 비판으로 끝맺는다. 도덕이란 것은 금지령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과 정당한 행동을 정의하는 문제에 관련되는데 여기에 종교가 적절한 가치관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자의 보는 견해로는, 반항과 회의의 과정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명백한 방법 제시를 필요로 한다. 청소년들은 교회 목사에게서 지시(dictation)보다 방향(direction) 제시를 기대하고 있으며 현명한 목사는 설사 청소년들의 양심이 목사의 것과 방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절대적 가치관을 설교하는 것보다 권면적인 대화로써 함께 옳은 방향을 탐구하고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쾌락은 오로지 性的이며, 비도덕적이며, 불법적인 것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의 통례적 견해이나 쾌락이 자아 통제나 자아 훈련에서도 올 수 있다는 주장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자는 관찰하고 있으며, 상황 윤리는 전통적 윤리관에서 개인을 해방할지는 모르나 인간에게는 개인의 결벽성, 청결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넓은 사회적 context에 자신을 의존하려는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모든 행동의 선도적 원리로서 사랑을 강조하는 상황 윤리는 인간은 자신의 수단과 도모만이 주어질 때 의도는 중요하나 때때로 자신을 기만하고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인식 못 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윤리관은 결코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단적 윤리관과 어디까지나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冊에서 저자는 안정감과 성실 그리고 의의를 추구하는 청소년들에게 종교의 중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규정된, 부정적인 윤리관이 아니고 창의성 있는 윤리관, 도덕적이면서 실로 종교적 윤리관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한다.

신학과 종교와 심리학의 배경을 저자 자신의 임상 경험과 정신 의학의 이론적 지식에 가미한 수준 높은 책으로 생각된다. 개혁주의적 관점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양심과 죄책감을 전문 지식으로서 분석하며 그 실제성을 제시한 점에서 윤리관의 바벨탑 언어의 혼잡으로 방향을 모색하는 청소년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양서이며, 정신 위생이나 심리 치료법이나 상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나 교회 목사들에게 필독을 권하고 싶은 교양서이다.

Legitimationsprobleme im Spätkapitalismus

(후기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법적 타당성 문제)

Jürgen Habermas

(Suhrkamp Verlag, Frankfurt a / M, 1973)

이　보　민
(고신대학 조교수 · 기독교 윤리학)

Jürgen Habermas는 1929년 Gummerbach에서 태어나 Bonn에서 공부했으며 1956년 Frankfurt Institutfür Sozialforschung에 Adorno의 조수로 일하기 시작했다. 사회학을 철학적인 근거에서 연구하는 학자로서 소위 신마르크스주의의 중견 기수로 활약하고 있다. 후기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서구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 이론을 특별히 본서에서 제시한다.

우선 그는 이 책에서 후기 자본주의의 제도적 또는 일반적인 특징을